



## 김민석 국무총리, 유엔아동기금(UNICEF) 총재 접견

- 김민석 국무총리는 4.28(화)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캐서린 러셀(Catherine Russell) 유엔아동기금(UNICEF) 총재를 접견하고 한-UNICEF 파트너십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.
- 김 총리는 러셀 총재의 방한을 환영한다고 하고, 지난달(3.16) 뉴욕에서 면담을 갖고 다시 서울에서 만나 기쁘게 생각한다 고 하였다.
- 러셀 총재는 유니세프의 중요한 파트너 국가이자 최대 공여국 중 하나인 한국을 방문하게 되어 의미있게 생각한다 고 하고,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놀라운 발전을 이룩한 한국의 사례가 전세계 국가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.
  - 특히 러셀 총재는 한국과 유니세프 간 협력을 대표하는 플래그십 사업인 ‘아동을 위한 회복력+’(Resilience for Children+)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평가한다고 하고,
    - ※ 한-UNICEF Resilience for Children+ : 교육, 식수·위생, 보건, 가족 복지 등 분야에서 시리아, 팔레스타인, 미얀마 등지의 아동을 지원
  - 아동에 대한 인도적 지원, 기후변화 대응 등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.
- 이에 대해, 김 총리는 우리정부가 유니세프와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고 하고, 이러한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유니세프가 주도한 ‘아동·청소년·기후행동 선언’(Declaration on Children, Youth, and Climate Action)\*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으며, 동 분야에서 계속해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하였다.

- \* 유니세프가 주도하여 '19년 채택된 선언으로, 아동과 청소년이 깨끗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,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는 요지  
- 현재까지 독일, 프랑스, 중국 등 75개국 이상 서명

□ 아울러 글로벌 AI 허브와 관련하여, 김 총리는 지난달 뉴욕에 이어 제네바를 방문하여 6개 국제기구와 의향서(LoI: Letter of Intent) 서명식(3.17)을 가졌다고 하고, 유니세프와도 AI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.

- 이에 대해, 러셀 총재는 글로벌 AI 허브와 관련한 김 총리와 한국 정부의 리더십에 사의를 표한다고 하고, 구체 사항에 대해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자고 하였다.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	책임자	팀 장 조정희 (02-2100-2109)
	외교안보정책관실	담당자	서기관 이예은 (02-2100-2132)

